

대행 스님

자기 내면세계에 주인공 안테나를 탁 세워 놓아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불법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가 쇠퇴하던 시절에 기복으로 편집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복으로 따르고 그렇게 믿고 가게 되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적 특징을 살려서 지금 현시점에 맞고 우리가 가는 길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그러하니 우리가 마음을 계발해서 내 몸이나 내 가정, 사회나 국가, 세계적으로 모든 걸 조화롭고 화목하게 돌릴 수 있는 원심력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르다면 나중에 질문도 하시고 또 나를 탓해도 좋습니다.

그럼 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것이 그렇지마는, 지금 살림하는 현시점에서 보면 우리 몸이 혹성이 될 수도 있고 그 혹성 속에 별성이 수십억 마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근원이 됨으로써 거기에서 수없는 생명이 창조가 되고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도 참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됐어도 정법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인간으로 어렵게 나왔는데 부처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간대서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있어서 우주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주도 있다는 걸 아는 그 시점으로부터 벌어진 겁니다. 즉, 바로 자기 마음에 우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한 생각에 수억 마리의 분신을 만들 수도 있고 분신을 없앨 수도 있고, 악을 만들 수도 있고 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스러운 무한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그걸 알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주인공의 안테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본래자성불 자체의 안테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생각 낼 수 있는 법신, 그리고 움죽거리는 화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위일체로서 회전하면서 자기가 바로 안내인처럼 또 선장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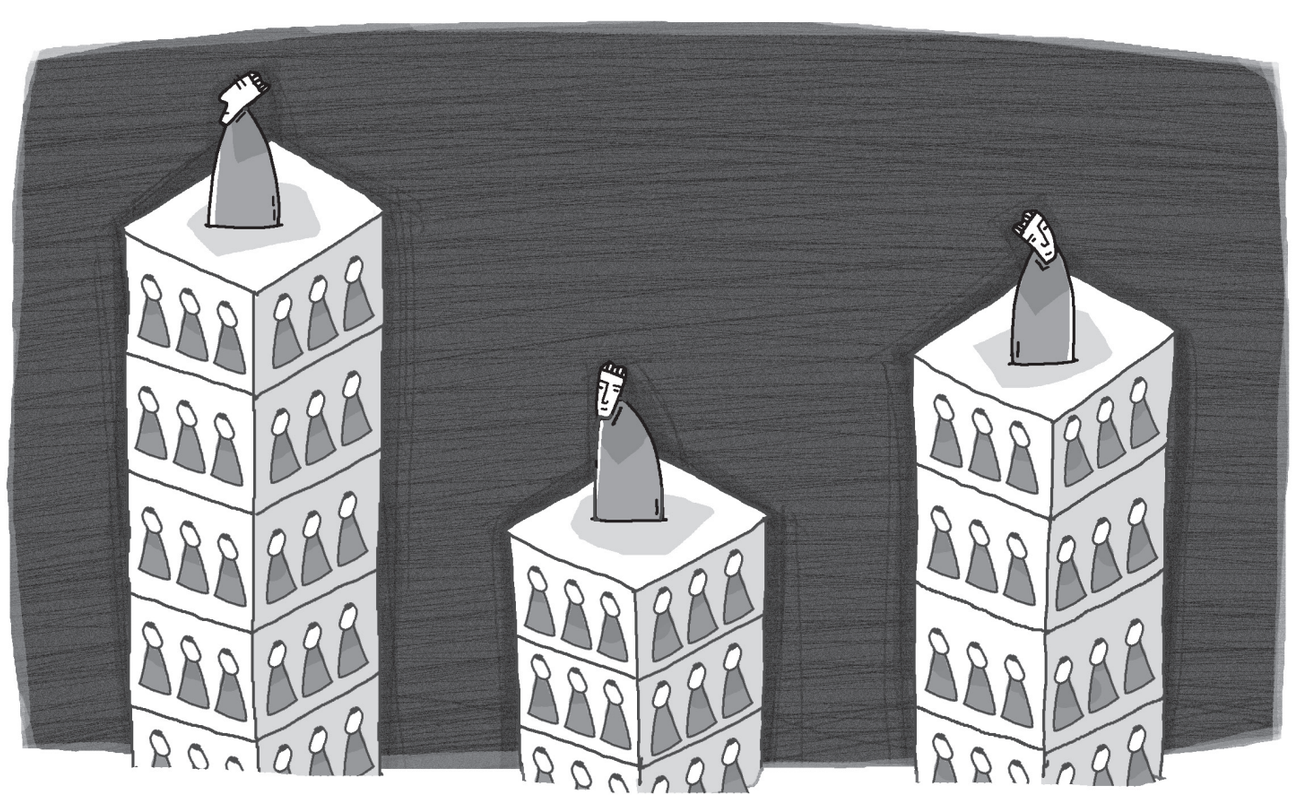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 각자가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자기 몸뚱이가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몸뚱이 속의 간세포만 하더라도 수십억 마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뚱이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집입니까? 그것이 내 몸이라고요? 이게 나라고요? 어떻게 나만 됩니까? 수십억 마리가 같이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간절하게 '우리가 당신을 선장으로 뽑아 놓았으니 당신 마음 한번 잘 먹어서 우리들을 잘 이끌고 가신다면 우리도 성불하고 우리도 각(覺)을 이룰 수 있고 우리도 이 미생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각자 자기의 선장한테 기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장이 코치를 잘못하는 길잡이가 된다면 그 배에 탄 중생들은 다 소멸되고 악으로 떨어지고 죽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님한테만, 어떠한 장소에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고 있는 데는 다 있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만생, 즉 말하자면 태로 나는 거, 알로 나는 거, 질척한 데서 나는 거, 화해서 나는 사생이 사는 데는 다 불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을 하고 밥을 해다 놓고 빌고 타의에서 구하고, 이러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사생이 다 생명이 있으니 바로 '불(佛)'인 것이고, 그것이 생각을 하고 움죽거리니 '법(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대로 살아나가는 그 생활이 불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불법을 잘못 알고 계신다면 바로 귀신, 미신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스님이 된 것도 아니요, 호화롭게 남이 가져오는 거 먹고 살 양으로 스님이 된 것도 아닙니다. 스님 노릇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아마 그 실천을 해 보지 못해서 모르실 겁니다. 무의 법, 유의 법을 한데 합쳐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그 자체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가자." 이러겠지마는 평소에 스님들은 배가 부르면 마음이 해태해지고, 또 기름진 쌀밥을 먹고 배가 불러도 남이 배고픈 줄 모른다고 해서 일종식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본래 내 몸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지금도 하루에 먹는 것이 보리밥 한 공기도 안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 우주간 법계에서 나를 용서치 않을 거예요. 누구도 내 행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내 행동과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양심이 부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남 보지 않는 데서 무슨 일을 하고서는 아무리 안 한 척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이상 우주간 법계에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천체통신기 있잖아요? 무전기. 무전통신기가 벌써 모든 법계를 싹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니 어찌 한 치라도 우연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진실하고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한마음의 안테나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신통이 한마음의 안테나에 붙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축이 있음으로써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프로펠러가 있기 때문에 축이 있다는 것을요. 축은 본래 자기 자성불이요, 움죽거리지 않고 들이고 낸다 이겁니다. 움죽거리지 않는 자성불을 중심으로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입니다.

그러니 그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하늘을 받치는 안테나 기둥이 서야 모든 일체, 삼천대천세계에서 일체 만물만생이 서로 살아나가면서 전달하는 그 이치가 거기 안테나에 잡히거든요. 이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모두가 막혀요. 나한테서 지혜가 나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연결이 되지도 않고요. 본래 연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끊어서 태질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볼 점이 있지 않으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으로다가 아무리 뜨고 날고, 만약에 한 사람이 백 명을 밀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말이에요, 밀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현대를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